

장애인의 코로나19 전후 우울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희*·이서윤**·장은지***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개인과 사회의 전 영역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제한 및 봉쇄 정책은 전염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한 반면, 개인의 고립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이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은 사회적 차별을 더욱 실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체감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중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우울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의 우울 궤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를 활용하였으며 우울 궤적을 추정하고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우울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점차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가구 연소득, 장애등급, 장애 유형이 우울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여성이고, 가구소득이 낮으며 장애 정도가 심하고, 비지체장애의 경우 우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들이 우울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장애인, 우울, 코로나19, 잠재성장모형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수료

***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박사과정

I. 서론

2020년 3월에 선언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는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팬데믹 감염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이동 제한과 폐쇄 정책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157개국의 코로나19 정부 대응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러한 봉쇄 및 폐쇄정책 대응은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지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Han & Park, 2021).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겼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Nasution, & Pradana, 2021).

장애인들은 질병 자체로 인한 위험의 증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재활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 전염 확산 완화를 위한 노력의 부정적 영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Shakespeare, Ndagire, & Seketi, 2021). 실제로 영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률을 검토한 결과 건강상의 장애로 인해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는 이들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2022),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인을 비교한 캐나다 연구에서도 이들의 코로나19 양성률과 사망률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unsky, et al., 2022). 이같은 보고들은 코로나19 전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의 현실이자 사회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Rotarou와 동료 연구진들(2021)은 이러한 불균형이 장애인의 내재된 취약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보통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공공기관/복지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코로나 대응 정책은 이들에게 복지서비스 공백을 발생시켰으며,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돌봄 문제를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송희, 이병화, 2020; Kuper, Banks, Bright, Davey, & Shakespeare, 2020). 코로나19 이후 장애인들은 자립생활과 일상생활 지원의 위기, 사회적 관계 및 외부 활동 축소로 인한 사회적 고립,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과정에서의 어려움, 공공일자리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0). 즉 질병 감염 이외의 부차적인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Santomauro et al., 2021; Necho, Tsehay, Birkie, Biset, & Tadesse, 2021),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장애를 가진 성인들에게서 높은 우울 증상이 관찰된 바 있다(Wang, et al., 2022). 또한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 걱정 또

는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고(Kinne, Patrick, & Doyle, 2004), 이러한 장애인의 우울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위험요인(박현숙, 2018)이기에 장애인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존 연구들은 질적연구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나(박지영, 권태연, 2021; 전근배, 2020), 코로나19 이후의 시점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Necho et al., 2020, Wang, et al., 2022). 특히 국내 공공기관을 통해 진행된 장애인 관련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루어져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의 우울 수준을 보여주며 코로나19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국립재활원,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그러나 장애 집단과 비장애 집단을 구분하여 2019년과 2020년의 정신건강 변화를 개인별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살펴본 김이레, 남재현(2022)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장애 집단의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상반된 결과들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우울 변화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장애 유형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Steptoe, & Gessa, 2021), 전반적인 장애인의 우울 수준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병 이후의 시점을 포함한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의 우울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기존에 선행된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의 영향력을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함께 다루는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을 검토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히 보고되고 있지 않다(Wang et al., 2022). 성별의 경우 여성장애인이 남성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예순, 김선용, 김명, 2014; 박병선, 배성우, 2021).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우울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Bucciarelli et al., 2021), 성별에 따라 장애인의 우울 변화도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령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이 수준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박병선, 배성우, 2021; Kinne, Patrick, & Doyle, 2004),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는 연령이 더 젊을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Pettinicchio, Maroto, Chai & Lukk, 2021; Wang et al., 2022). 사회경제적지위가 장애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이계승, 2014)는 선행연구에 따라 가구 연소득과 학력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사회적 고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Pettinicchio et al., 2021; Wang et al., 20

22) 거주지역과 독거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장애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등급과 장애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장애등급이 높고 의존적일수록(김예순, 김선용, 김명, 2014) 우울수준이 높고,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장애가 복합적일수록 불안과 절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ettinichio et al., 2021).

이를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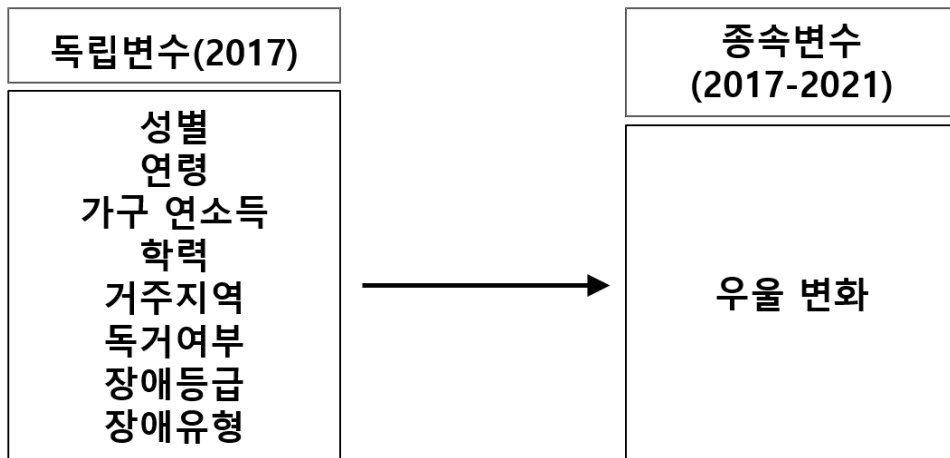
첫째, 코로나19 전후 시점에서 한국 성인 장애인의 우울 궤적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의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우울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코로나 19 전과 후의 우울 변화를 확인하고 우울 변화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12~16차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한국 복지에 대한 대표적인 패널 조사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12차)부터 2021년(16차)까지 우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79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주요변수

1)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남성=0, 여성=1), 연령(연속변수), 가구 연소득(연속변수), 학력(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교 이상=5), 거주지역(대도시=0, 중소도시=1), 독거 여부(비독거=0, 독거=1), 장애등급(경증=0, 중증=1), 장애 유형(지체장애=0, 비지체장애=1)로 구성하였다. 특히 가구 연소득은 균등화 가구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며, 정규분포를 위해 로그 변환하였다.

2) 종속변수: 우울

종속변수는 우울로써, Kohout et al.(1993)의 축약형 CES-D 척도를 변안하여 활용하였다. CES-D는 비진단적 방법으로 우울 증상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도구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축약형 CES-D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Kohout et al.(1993)이 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1문항으로 축약한 척도이다. 우울은 4점 척도(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2017년 .892, 2018년 .885, 2019년 .885, 2020년 .873, 2021년 .893 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7.0과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전반적인 장애인의 우울 변화를 추정하고 우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진행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종단자료가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무조건적 모형(Analysis of 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진행하고, 2단계에서는 종단자료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조건적 모형(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적합도 지수 대표성, 모형의 간명성 등을 고려하여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373명(47.0%)이고, 여성은 420명(53.0%)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61.53세(SD=12.95), 가구 연소득은 1,830,24만원(SD=1,278.29)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은 무학이 113명(14.2%), 초등학교가 297명(37.5%), 중학교가 127명(16.0%), 고등학교가 183명(23.1%), 대학교 이상은 73명(9.2%)로 나타나 초등학교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319명(40.2%)로 중소도시 474명(59.8%)보다 적었다. 독거여부의 경우 비독거는 558명(70.4%)로 독거 235명(29.6%)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등급은 경증 장애 560명(70.6%), 중증 장애 233명(29.4%)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507명(63.9%), 비지체장애 286명(36.1%)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변수	명수	%
성별	남성	373	47.0
	여성	420	53.0
연령(M(SD))		61.53(12.95)	
가구 연소득(만원)(M(SD))		1,830.24(1,278.29)	
학력	무학	113	14.2
	초등학교	297	37.5
	중학교	127	16.0
	고등학교	183	23.1
	대학교 이상	73	9.2
거주지역	대도시	319	40.2
	중소도시	474	59.8
독거 여부	비독거	558	70.4
	독거	235	29.6
장애 등급	경증 장애	560	70.6
	중증 장애	233	29.4
장애 유형	지체장애	507	63.9
	비지체장애	286	36.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장애인의 우울 평균은 2017년 1.48점(SD=.50)에서 2021년 1.58점(SD=.55)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에 우울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Min)	최대값(Max)	평균(Mean)	표준편차(SD)
우울-2017yr	1.00	4.00	1.48	.50
우울-2018yr	1.00	3.55	1.48	.48
우울-2019yr	1.00	3.64	1.50	.52
우울-2020yr	1.00	3.48	1.53	.50
우울-2021yr	1.00	3.82	1.58	.55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2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무조건적 모형으로 장애인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조건적 모형 분석을 통해 1단계에서 구한 초기값과 변화율을 바탕으로 우울 변화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무조건적 모형 분석(Analysis of Unconditional Model)

조건적 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전 우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조건적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조건적 모형을 통해 최적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 선형 변화모형, 이차함수 변화모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우울에 대한 이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chi^2 = 8.923$ ($p > .05$), CFI = .997, TLI = .995, RMSEA = .025로, 이차함수 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보다 우울의 변화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3〉 무조건적 모형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86.089***	13	.891	.907	.094
선형 변화모형	33.545***	10	.948	.948	.064
이차함수 변화모형	8.923	6	.997	.995	.02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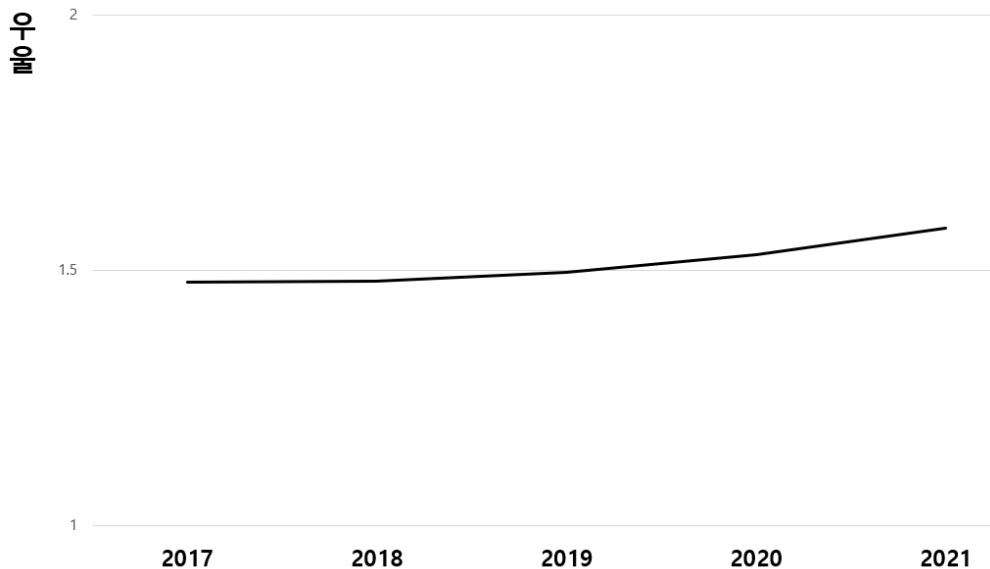
최종 선정된 무조건적 이차함수변화모형의 분석 결과를 〈표 4〉와 같이 확인해보면, 2017년의 우울을 의미하는 우울 초기값의 평균은 1.480($p < .001$)이었고, 우울의 선형 변화율은 .022($p < .0$

5), 이차함수 변화율은 .008($p < .05$)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우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율이 높아져 우울 수준이 점차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산은 초기값 .457($p < .001$), 선형 변화율 .122($p < .001$), 이차함수 변화율 .002($p < .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 간에 우울의 초기수준과 변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4> 초기값 및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구분	평균		분산	
	Estimate	S.E.	Estimate	S.E.
초기값	1.480***	.032	.457***	.075
선형변화율	.022*	.022	.122***	.030
이차함수 변화율	.008*	.004	.002***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장애인 우울의 이차함수 변화모형 추정치

2) 조건적 모형 분석(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조건적 모형 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조건적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chi^2 = 22.389(p > .05)$, CFI = 1.000, TLI = .999, RMSEA = .005로 모형을 분석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Coef.=.190, $p < .01$), 가구 연소득(Coef.=-.184, $p < .05$), 장애등급(Coef.=.133, $p < .05$), 장애 유형(Coef.=.145, $p < .05$)이 우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대비 여성인 경우, 가구 연소득이 낮을수록, 장애등급이 경증 대비 중증인 경우, 장애 유형이 지체장애 대비 비지체 장애인 경우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학력, 거주지역, 독거 여부는 우울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변수는 선형 변화율과 이차함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건적 모형 분석

변수 간 경로			Coef.	S.E.
성별(ref.남성)	→	우울 초기값	.190**	.067
연령	→	우울 초기값	.001	.003
가구 연소득(log)	→	우울 초기값	-.184*	.061
학력	→	우울 초기값	-.022	.033
거주지역(ref.대도시)	→	우울 초기값	-.060	.064
독거여부(ref.비독거)	→	우울 초기값	.118	.074
장애등급(ref.경증)	→	우울 초기값	.133*	.072
장애유형(ref.지체장애)	→	우울 초기값	.145*	.067
성별(ref.남성)	→	우울 선형 변화율	-.067	.049
연령	→	우울 선형 변화율	.001	.002
가구 연소득(log)	→	우울 선형 변화율	.044	.044
학력	→	우울 선형 변화율	.019	.024
거주지역(ref.대도시)	→	우울 선형 변화율	.010	.046
독거 여부(ref.비독거)	→	우울 선형 변화율	-.007	.054
장애등급(ref.경증)	→	우울 선형 변화율	.020	.052
장애 유형(ref.지체장애)	→	우울 선형 변화율	-.058	.049

변수 간 경로			Coef.	S.E.
성별(ref.남성)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12	.008
연령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1	.001
가구 연소득(log)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9	.007
학력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4	.004
거주지역(ref.대도시)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2	.008
독거 여부(ref.비독거)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1	.009
장애등급(ref.경증)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2	.009
장애 유형(ref.지체장애)	→	우울 이차함수 변화율	.009	.008

*** $p < .001$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의 우울 수준 변화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코로나19 범유행 전후의 우울 궤적을 파악하고,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장애인 79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우울 수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 증가 속도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에는 우울 수준이 예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우울 변화 유형은 무조건적 이차함수 변화모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율이 점차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시점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조사된 선행연구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2%, 자살 사고율은 11.1%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평균(10.5%)에 비해서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다. 2021년 6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시행한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국립재활원, 2021),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장애인(79.5%)이 비장애인(75.1%)보다 4.4%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장애인(13.1%)이 비장애인(6.6%)보다 6.5%p 높았으며, 불안을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장애인(27.2%)이 비장애인

인(13.9%)보다 13.3%p 더 높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 시기 우울, 불안, 불면증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Necho et al., 2020, Wang, et al., 2022).

둘째, 장애인의 우울 수준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가구 연소득, 장애등급, 장애 유형이었으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장애인 우울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난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일수록, 가구 연소득이 낮을수록, 장애등급이 중증일수록, 정신장애나 내부기관 장애 등과 같은 비지체장애를 가질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기존 연구의 흐름에 부합하는 결과이다(김예순 외, 2014; 박병선, 배성우, 2021). 그러나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우울 수준의 초기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장기적으로 우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장애 특성 등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유행 시기 장애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특징적으로 나타난 감염병 유행 시기 장애인의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 선별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낮고, 코로나 이후 접근성 악화를 더 크게 경험하였으므로 이점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은 장애인(14.7%)이 비장애인(9.9%)보다 높게 나타났다(국립재활원, 2021). 그러나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36.8%)이 비장애인(52.5%)보다 낮게 나타나 의료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염병 재난 시기 비장애인보다 더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령, 장애 유형별 특수한 건강 필요를 잘 숙지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함께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 인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함께 교통비 및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원격진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재활원에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의 생체신호와 생활 습관 데이터 모니터링, 맞춤형 운동관리·마음건강관리 방법 가이드, 전문가와의 비대면 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국립재활원, 2021). 더불어 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 교육용 동영상 자료를 국립재활원 누리집 자료실(www.nrc.go.kr) 및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여, 장애인 누구나

가정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립재활원, 2021). 향후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우울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 초기에는 성별, 가구 연소득, 장애등급, 장애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대상군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애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보건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차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소거되는 원인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장애인 개인적 요인 외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재난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처럼 코로나19 사망자와 치명률을 중심으로 관리 대책이 집중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가는 향후 장애인의 코로나 예방, 감염, 자가격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악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2차 데이터의 한계로 독립변수와 장애 유형 등을 다양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나 내부장애를 비지체장애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아 장애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집단만 선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비장애인 인구집단과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포함한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외에 장애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얼마나 심화했으며, 그것이 우울 수준의 급격한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유행 시기에 단면적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코로나 전후 시기 변화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참고문헌

- 김예순, 김선용, 김명. (2014). 성인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과 우울 영향 요인-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대한보건연구 (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40(4), 51-62.
- 김이레, 남재현. (2022). 코로나 19 가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2), 102-121.
- 박병선, 배성우. (202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검증: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비교. 보건사회연구, 41(4), 167-186. doi: 10.15709/hswr.2021.41.4.167
- 박지영, 권태연. (2021). 코로나-19 그리고 고립, 묶임, 연대: 정신장애인 가족 목소리로부터의 성찰과 우리 역할 재고.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84-1095.
- 박현숙. (2018). 성인장애인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과의 영향관계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627-635. doi: 10.21742/AJMAHS.2018.01.46
- 국립재활원. (2021).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이계승. (2014).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수준의 관계 - 우울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24(1), 111- 138.
- 이송희, 이병화. (2020).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과 복지, 22(3), 7-34. doi: 10.23948/kshw.2020.09.22.3.7
- 전근배. (2020). 국가의 거리: 코로나 19 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68), 173-207. doi: 10.47042/ACSW.2020.08.68.17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ucciarelli, V., Nasi, M., Bianco, F., Seferovic, J., Ivkovic, V., Gallina, S., & Mattioli, A. V. (2021). Depression pandemic and cardiovascular risk in the COVID-19 era and long COVID syndrome: gender makes a difference. Trends in Cardiovascular Medicine. doi: 10.1016/j.tcm.2021.09.009
- Han, C., & Park, S. (2021). The Effect of the Containment and Closure Policies on the Spread of COVID-19.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30(3), 1-38. doi: 10.33900/KAPS.2021.30.3.1
- Kinne, S., Patrick, D. L., & Doyle, D. L. (2004). Prevalence of secondary conditions

-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3), 443-445. doi: 10.2105/AJPH.94.3.443
- Kinne, S., Patrick, D. L., & Doyle, D. L. (2004). Prevalence of secondary condition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3), 443-445. doi: 10.2105/AJPH.94.3.443
- Kuper, H., Banks, L. M., Bright, T., Davey, C., & Shakespeare, T. (2020). Disability-inclusive COVID-19 response: What it is, why it is important and what we can learn from the United Kingdom's response. *Wellcome open research*, 5, 79. doi: 10.12688/wellcomeopenres.15833.1
- Lee, D. S. (2020). Care for the Disabled during the Infectious Disease Pandemic. 202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Colloquium.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of June 25, 2020)
- Lunsky, Y., Durbin, A., Balogh, R., Lin, E., Palma, L., & Plumptre, L. (2022). COVID-19 positivity rates, hospitalizations and mortality of adults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ntario, Canada.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5(1), 101174. doi: 10.1016/j.dhjo.2021.101174
- Nasution, L. A., & Pradana, A. A. (2021). Vulnerable populations' coping in facing challe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Enfermeria Global*, 20(3), 612-621. doi: 10.6018/eglobal.456301
- Necho, M., Birkie, M., Gelaye, H., Beyene, A., Belete, A., & Tsehay, M. (2020). Depression, anxiety symptoms, Insomnia, and cop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among individuals living with disabilities in Ethiopia, 2020. *PloS one*, 15(12), e0244530. doi: 10.1371/journal.pone.0244530
- Necho, M., Tsehay, M., Birkie, M., Biset, G., & Tadesse, E. (2021). Prevalence of anxiety,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7(7), 892-906. doi: 10.1177/00207640211003121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ondon (2021). Updated estimates of coronavirus

- (COVID-19) related deaths by disability status, England: 24 January 2020 to 9 March 2022. <https://www.ons.gov.uk>
- Pettinicchio, D., Maroto, M., Chai, L., & Lukk, M. (2021). Findings from an online survey o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COVID-19 on Canadians with disabilities and chronic health conditions.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14(3), 101085. doi: 10.1016/j.dhjo.2021.101085
- Rotarou, E. S., Sakellariou, D., Kakoullis, E. J., & Warren, N. (2021). Disabled people in the time of COVID-19: identifying needs, promoting inclusivity. *Journal of global health*, 11, 03007. doi: 10.7189/jogh.11.03007
- Santomauro, D. F., Herrera, A. M. M., Shadid, J., Zheng, P., Ashbaugh, C., Pigott, D. M., ... & Ferrari, A. J. (2021). Global prevalence and burden of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in 204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2020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Lancet*, 398(10312), 1700-1712. doi: 10.1016/S0140-6736(21)02143-7
- Shakespeare, T., Ndagire, F., & Seketi, Q. E. (2021). Triple jeopardy: disabled people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Lancet*, 397(10282), 1331-1333. doi: 10.1016/S0140-6736(21)00625-5
- Steptoe, A., & Di Gessa, G. (2021). Mental health and social interactions of olde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Eng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cohort study. *The Lancet Public Health*, 6(6), e365-e373.
- Wang, K., Manning, R. B. III, Bogart, K. R., Adler, J. M., Nario-Redmond, M. R., Ostrove, J. M., & Lowe, S. R. (2022). Predicting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habilitation Psychology*, 67(2), 179-188. doi: 10.1037/rep0000434
- Wang, K., Manning, R. B. III, Bogart, K. R., Adler, J. M., Nario-Redmond, M. R., Ostrove, J. M., & Lowe, S. R. (2022). Predicting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habilitation Psychology*, 67(2), 179-188. doi: 10.1037/rep0000434
- Wang, K., Manning, R. B. III, Bogart, K. R., Adler, J. M., Nario-Redmond, M. R.,

Ostrove, J. M., & Lowe, S. R. (2022). Predicting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habilitation Psychology*, 67(2), 179-188. doi: 10.1037/rep0000434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8.	게재확정 : 2022. 11. 28.
---------------------	-----------------------	----------------------

Abstract

Analyzing Change Trajectory and Determinants of depression of disabled adults

Kim Sung Hee*·LeeSeo Yoon**·Chang Eun Jee***

The pandemic affects everyone, but it has had a particularly negative impact on the most vulnerable, including those who are disabled. In addition to the increased risks associated with the disability itself, reduced access to routine health care and rehabilitation, as well as the negative effects associated with efforts to mitigate the spread of COVID-19,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suffered from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COVID-19.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over time among all registered disabled individuals, including the period since the onset of COVID-19.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12th-16th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which was conducted from 2017 to 2021. 793 individuals who were able to estimate the change in depression from 2017 (12th) to 2021 (16th)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depression among the disabled occurs over time, and the level of depression rose gradually. In examining the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s initial value and rate of change, it was found that gender, annual household income, disability severity, and disability typ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s initial value. In another word, individuals being women, the lower the household income, the more severe the disability, and not having a

* Ph.D. Student at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Ph.D. Candidate at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Ph.D. Student a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physical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higher depress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health car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be more disability-friendly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y, who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during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such as COVID-19

Keywords : disabled, COVID19, depression, Latent Growth Modeling